

* 실패하면 다시 노력하고
성공하면 더욱 노력하는 것이
곧 사업을 안착 시키며 즐길수 있는
준칙이다.

- 108 자재어 중에서 -

세원소식지

www.sewonsa.com

*펴낸이 : 정 운
*편집인 : 유 진
*펴낸곳 : 세 원 사
*인 쇄 : 형제인쇄·광고

올바른 새해맞이 기도는

정 운 (세원사 주지)

인연법을 잘 배운 부처님 제자답게 새해 인사는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복 많이 지으세요”라 던가 “공덕 많이 지읍시다”하는 여법한 인사말을 두루 나누셨는지요. 다들 복을 많이 지으라는 이 말에 담긴 뜻은 아시지요? 혹여 평소에 복을 잘 짓는 습관 없이 양껏 받으려고만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마치 평소에 저금은 하지 않으면서 돈을 뽑아 쓰고 싶어 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습관은 결국 파산하여 곤란한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복을 저금하고 또 아껴서 쓰면서 그 복을 어렵고 힘든 이웃과 나누는 삶이 바로 그 풍족한 불자의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해는 뱀의 해입니다. 사람들은 뱀을 징그러운 동물로 여기곤 합니다만, 민화나 풍속에서는 성장할 때마다 한 겹씩 허물을 벗어내는 특성에 따라 변화와 재생을 상징하기도 하고, 자손이 번성하는 풍요로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집안에 큰 뱀이 나타나도 함부로 해치거나 죽이지 않았 습니다. 뱀을 오래된 집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뱀이 상징하는 변화와 성장의 힘을 염두하고 허물을 벗어버리듯 해묵은 아쉬움과 업장을 벗어내고 새해를 계획한다면 을사년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새해는 무엇이 새해입니까. 1월 1일에 뜨는 해는 12월 31일에 뜨는 해와 그리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음력 양력에 따라 새해의 기준도 달라지니 우주에 딱 정해놓은 새해는 없습니다. 그러면 새해는 어

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 마음에 새해가 있습니다. 서로가 약속해놓은 저 달력의 새해는 실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합니다. 묵은 달력을 내리고 새 달력을 펼치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열리면 새해가 시작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난해에 어떠한 아쉬움도 없고, 후회도 없이 매일매일 행복하게 정진해 왔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새해라고 해서 뭔가 새롭게 바꿀 필요 없이 그대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아쉬움과 후회가 없는데 뭐하러 새로운 변화를 찾겠어요. 그러나 스스로 돌이켜서 잘 살펴보고 혹시 어떤 미흡한 점이 있거나 변화할 점이 있다면, 이 새해를 구실삼아서 전환점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해는 새로운 다짐을 하기 아주 좋은 때입니다. 특히 지난해 무언가 아쉬운 게 있다면 삶에 변화를 주어 도약하는 데 참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해 다짐들을 하시나요. 어떤 신문 기사에서 현대인들이 많이 세우는 새해 목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연’, ‘진학’, ‘취업’, ‘저축이나 재테크’, 그리고 평생 빠질 수 없는 ‘다이어트’ 같은 것들이 있더군요. 여러분들도 다들 한 번씩은 고민해본 목표들이 있으시지요? 사람들은 이런 목표를 세우고는 얼마나 꾸준히 실천하고 있을까요? 기사에는 이 목표를 세운 뒤에 그것들을 유지한 기간도 함께 물어보았습니다. 한 달도 지키지 못한 비율이 30% 정도이고 꾸준히 지켜서 반년을 넘긴 사람들



www.sewonsa.com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세원사 홈페이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 많은 방문 하시길 바랍니다.

도 대략 30%쯤 된다고 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심삼일의 삶을 살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상상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잘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새해 목표가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는 방법 세가지를 들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실현 가능한 목표 세우기 - 허무맹랑하거나 너무 큰 목표들은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끝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능한 목표를 세우려면 우선 나의 능력과 현재 모습을 잘 알아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설정하기 - 무조건 해내겠다는 다짐을 자꾸 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어떻게 실천하고 점검할지, 그리고 중간중간 계획을 수정도 해가면서 열정을 쏟는 게 더 성과가 높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실천할 동료 구하기였습니다. 불가(佛家)에서도 함께 수행정진 하는 도반이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일 수 있다는 말씀이 있을 정도로 함께 하는 자체가 큰 힘이 됩니다. 결론은 전문가의 세 가지 방법이 다 일리 있고 이치에 맞는 말씀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 제자라면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성취의 목표보다는 내면적인 수행 목표를 더 우선해서 세워보았으면 합니다. 물론 돈을 벌고 일을 해낸다는 목표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외적으로 세운 목표들은 내면적인 수행을 병행할수록 더 순조롭게 흘러갈 것입니다.

마음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우리의 여러 다짐과 목표가 더 단단해집니다. 작심삼일이 아니라 3년도 가고 30년도 가는 그런 마음을 만드는 것은 결국 마음공부이며 수행입니다. 재가불자들의 수행은 스님들처럼 온종일 정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물질적인 욕구를 아주 끊어낼 수도 없지요. 우리 인생사는 늘 성공만 이어 갈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 중생 세계는 많은 이들의 욕망과 목표가 서로 맞닿아 부딪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될 수 없는 어려운 곳이지요. 진학을 위한 시험이든 취직을 위한 시험이든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늘 존재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중요

한 것은 성공을 위한 간절한 욕심보다는 실패할 때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장애가 생길 때 어떻게 극복할 힘을 기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불자들이 삶에서 수행하는 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열심히 기도정진 하다가도 다른 이들의 말과 행동에 얽매어 분노하고 질투하며 희노애락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타인이 내게 건네는 말이란 너무나도 강하게 우리를 흔드는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의 행동도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타인의 말과 행동에 다양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 아닌 그들끼리의 대화나 행동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분주합니다. 요즘같이 정보도 넘쳐나고 미디어가 홍수인 시대에는 마음이 쉴 새가 없는 듯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이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죠. 수많은 대화 중에 하나씩 내 마음을 흔드는 말들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거칠게 말하거나 원인을 잘못 해석하거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 말이 우리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거나 틀렸다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불교에선 분별을 일으킨다고 하고 이런 분별을 일으키는 사건을 '경계'에 끄달린다고 말합니다.

옳고 그름의 분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아주 중요하며 세상살이에 꼭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별에 너무 집착하거나 집착을 넘어 분노나 혐오의 강한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이 크게 요동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매우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말과 행동에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면 수행은 고사하고 평온한 일상생활도 지켜내기 어렵습니다. 세속적인 성취도 어려워지고, 성공하여 큰 재물을 얻는다고 해도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 힘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병의 근원이라고 하는가 하면,
대상에 대하여 마음이 작용하는 것으로서
마음이 작용할 때**

그것이 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작용하는 대상은
일체의 미(迷)한 세계입니다
이 마음의 작용을 끊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으면,
그때 마음은 대상을 향하여
작용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생각을 떠나는 것이며,
상대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며,
이들을 떠나는 것이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문수사리여, 이와 같은 것을
병든 보살이 그의 마음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마힐경』 「문병품」

그래서 올해는 '남의 말이나 행동에 끄달려 화내고 짜증 내는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본래 생각과 습관의 차이를 유념하는 것이지요. 만일 가족 간에 불화가 잦다면 올해는 서로 관조하고 감정의 거리를 좀 두는 연습을 해봅시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고 지적하는 잔소리를 줄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수행이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가족 간에 간섭이 많고 사소한 일로 마음에 상처도 많이 주고받습니다. 함께 일하는 사이에도 이런 연습은 매우 요긴합니다. 타인의 삶에 간섭하거나 시비 분별하지 않고 자유롭게 한다면 무엇보다 내 마음의 평온해지고 행복해질 바탕이 튼튼해지게 됩니다.

내면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위한 수행을 시작한다면, 밖으로는 좀 베풀고 회향하는 습관을 연습하면 어떨까 합니다. 불자들은 익히 잘 아시겠지만, 회향(廻向)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돌려주는 행위입니다. 회향은 물건일 수도 있고, 또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정진한 공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회향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처음 예배하고 공경함으로부터 중생의 뜻을
수순하기까지
그 모든 공덕을
온 누리에 있는 모든 중생에게 돌려
중생들로 하여금 항상 편안하고
즐겁고 병고가 없게 한다.

『화엄경』 「보현행원품」

회향은 참 아름다운 행동이지만 무언가 나누었다고 해서 다 진실한 회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 나눌 때 자꾸 내가 나누었다. 좋은 일을 했다 하는 생각이 남게 되는데 이 생각이 우리의 공덕을 무르익지 못하게 만들고, 잘못하면 자만과 집착을 키우는 결과가 오기도 합니다. 내가 나눠주었다는 생각이 강하면 사람들이 내 기대만큼 고마워하지 않았을 때, 혹은 누군가 그것을 몰라 줄 때 서운한 마음이 생기기 쉽습니다. 심지어는 서운함을 넘어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와 남이 함께 기쁘자고 한 나눔인데 이런 기대심리 때문에 오히려 나누지 않음만 못한 안타까운 일도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부처님께서서는 내가 베풀되 내가 했다는 생각이 없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연습하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반이라고 합니다. 한 해의 시작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삶의 흐름과 기운이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작을 불자들은 기도와 정진, 그리고 마음수행으로 시작해 봅시다. 각 사찰에서는 이런 의미로 '정초기도'를 마련하고 정성을 모아 정진합니다. 혹시 직장이나 여러 사정으로 이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라도 새해맞이 기도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할 때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마음수행과 회향을 유념하면서 올해도 어떤 어려움이 나를 찾아와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지닌 불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원소식

후원금 현황

성명	금액	성명	금액	지출	
한명현	30,000	유성운	30,000	청소년교회연합회	90,000
명청소년소아과	50,000	김재경	600,000		
조명연	50,000	강상훈	20,000		
박인자	50,000	오희순	30,000		
김현준	10,000	양정하	30,000		
유정현	10,000	강진아	20,000		
유진스님	20,000	이경환	1,600,000		
임석진	50,000	최부호	50,000		
이건림	20,000	형제인쇄.광고	30,000		
이정옥	50,000				
광명전기	50,000				
이경화	50,000				
김중성	50,000				
곽신애	20,000				
서동창	10,000				
배두성	20,000				
이정숙	20,000				
박순애	30,000				
이장희	50,000				
이원호	50,000				
이용렬	50,000				
유상숙	50,000				
이주연	20,000				
박명호	30,000	계	3,250,000	계	90,000

여러분의 후원금은 청소년 교화사업에 쓰여집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후원금은 2024년 12월 28일~2025년 1월 24일까지 입금된 것입니다.

<351-0988-2053-63> 농협(세원아정) 후원금 통장입니다. 원하시는 분 입금 부탁드립니다.

위 내역은 시보조금을 제외한 순수한 자부담 지출입니다.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 매주 화요일 : "사회성향상" "자아존중감향상" "사랑의교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수요일 : "위기를기회로" "사랑의교실" "집중력향상"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목요일 : "위기를기회로" "또래상담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금요일 : "검정고시학습반" "사회봉사" "사랑의교실" "예술치료" "심리검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 ◆ 매주 화요일 : "방송댄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수요일 : "동화책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목요일 : "전통다도체험하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금요일 : "디폴블럭" "초등댄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 매주 토요일 : "드림교실" "기타교실" "건축물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령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 매주 화, 목요일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